논어 17편 양화 19장 · 원문·풀이

子曰：「予欲無言！」子貢曰：「子如不言，則小子何述焉？」子曰：「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

독음 · 자왈 여욕무언 자공왈 자여불언 즉소자하술언 자왈 천하언재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언재

쉬운 풀이(요약) · 공자가 말하지 않으려 하자 자공은 무엇을 전하겠느냐고 물었다. 공자는 하늘이 말하지 않아도 사계절이 흐르고 만물이 자란다고 답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予 자기 여 여 / 欲 욕심낼 욕 욕

無 없을 무 무 / 言 말씀 언 언 / 貢 바칠 공 공 / 如 같을 여 여

不 아닐 불 / 則 곧 즉 / 小 작을 소 소 / 何 어찌 하 하

述 이을 술 술 / 焉 어찌 언 언 / 天 하늘 천 천 / 哉 비로소 재 재

四 넉 사 사 / 時 때 시 / 行 다닐 행 행 / 百 일백 백 백

物 만물 물 물 / 生 날 생 생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